## 사제의 해의 공식 시 작

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(St. John Mary Vianney·1786~1859)의 선종 150주년을 맞아 선포한 '사제의 해'(Year for Priests)가 6월 19일 바티칸에서 공식 시작됐다.

2009-6-23

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성 요한 마리 아 비안네 신부(St. John Mary Vianney·1786~1859)의 선종 150주 년을 맞아 선포한 '사제의 해'(Year for Priests)가 6월 19일 바티칸에서 공식 시작됐다.

교황은 이날 아르스에 있는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심장을 모신 유물함이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옮겨오자, '예수성심대축일' 저녁기도와 함께 '사제의 해'의 역사적인 개막을 선언했다.

교황은 지난 3월 16일 교황청 성직자 성 정기총회 참석자들에게 행한 연설 에서 "사제 직무의 효력이 달려 있는 영적 완덕을 향한 사제들의 노력을 북돋우고자 올해 6월 19일부터 2010 년 6월 19일까지를 '사제의 해'로 지 내기로 했다"고 선포한 바 있다.

교황의 '사제의 해' 선포에 따라, 교황 청 성직자성과 인류복음화성도 서한 을 발표하고 사제의 해가 ▲사제직과 각 사제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▲하느님 백성 전체가 사제직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해로 지낼 것을 당부했다.

교황청 내사원은 이에 앞서 4월 25일 자로 서명한 교령에서 "'사제의 해' 기간 동안 전 세계 사제와 신자들이 특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"고 밝혔 다

한국 교회도 '사제의 해'를 맞아 6월 19일 각 교구별로 개막미사를 거행하 고, 사제직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제 성화를 다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가졌 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<a href="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sajeyi-haeyi-gongsig-sijag/">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sajeyi-haeyi-gongsig-sijag/</a> (2025-11-20)